

■ KLPGA 엠씨스퀘어컵 오늘 개막

신지에 “연승행진시동 걸겠다”

‘우리투자증권’ 우승 이어

최다연승 기록(7연승) 도전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의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가 연승캐도 진입에 나섰다.
 23일부터 사흘동안 제주 크라운골프장(과72·6천300야드)에서 열릴 MBC투어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에 출전하는 신지에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2008년 시즌 3개 대회에서 이미 두 차례 우승, 상금왕과 다승왕을 차지해 지존 타이틀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신지에의 오초아의 연승 기록에 눈길을 두고 있다.
 지난해 9승을 올려 오초아(8승)보다 우승이 더 많았던 신지에의 그러나 연승기록은 3연승 한번 뿐이다.
 오초아가 4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리자 신지에도 연승 기록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여자오픈에 이어 이 대회 우승으로 작년에 이뤘던 3연승을 넘어서 4연승 이상 연승 기록을 이어가는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제주 원정에 이어 휘트니스파크를 래식, 한국여자오픈, 그리고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힐스테이트 서경오픈 등에 출전할 예정인 신지에의 구유희(52·김영주골프)가 갖고 있는 최다 연



승기록(7연승)도 내심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신지에의 강풍에 말려 1라운드에서 76타로 크게 부진했지만 선두에 7타나 뒤쳐져 나선 최종 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연장전에 진출,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신지에의 앞길이 마냥 편안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빼듯한 일정 탓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다는 약점을 파고드는 경쟁자들이 한 무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개막전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는 국내 그린에 적응하지 못해 ‘톱 10’에도 들지 못했던 신지에의 우리투자증권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따내 체면은 세웠지만 이일희(20·테일러메이드), 김하늘(20·코오롱)의 거센 도전을 가까스로 떨쳐냈다.
 아직 프로무대 우승이 없는 이일희와 김하늘은 이번 대회에서도 신지에에 아성을 깨겠다며 도전장을 냈다.
 새로 투어에 뛰어든 도하(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삼총사 유승민(18·하이마트), 최해용(18·LG), 정재은(19·하나금융), 그리고 작년 2부투어 상금왕 김해운(19·하이마트) 등 겹겹의 신인들의 도전도 부담스럽다.
 1라운드는 MBC-ESPN이 중계하고 2,3라운드는 MBC가 지상파로 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22일 고흥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7회 전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서 22개 시·군 기수단과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빅초이 한 방 팀 승패 좌우

“홀런 1위, 타점 2위 그리고 삼진 1위.” KIA 타선의 핵 최희섭의 팀내 타격 성적표다.



KIA 5승 중 희섭 결승타 3개

삼진도 ‘최다’ 타력 ‘극과 극’

고른 타격감 찾는게 급선무

지난 21일까지 KIA타이거즈가 5승 14패로 답답한 행진을 하는 동안 타선의 중심 최희섭은 13홀런, 10타점으로 팀내 타격 상위에서 랭크됐다. 그러나 최희섭은 삼진도 15개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며 극과 극을 달리는 팀 타선처럼 들쭉날쭉하다.
 하지만 최희섭은 팀이 승리를 행진 5경기에서 3차례나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면서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의 승패는 최희섭에게 물어보아야 할 형편이다.
 최희섭은 팀이 승리했던 5경기에서 21타수 5안타를 기록, 타율은 0.238에 불과했지만 2개의 홈런포를 터트리며 7타점을 올렸다. 한국 무대 첫 3루타도 기록했다.
 최희섭의 홀런이 터지는 날은 팀 타선도 함께 터진다. 1호 홈런이 나왔던 3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팀은 9개를 안타를 만들며 6-3으로 승리했다.
 지난 15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선 2점 홈런이자 2호 홈런이 터졌다. 이날 양 팀은 14개의 안타를 주고 받으며 9회 역

KIA 5승 경기, 최희섭 기록

| |
|-------------------------------------|
| 4월 2일(vs 두산) = 4타수 1안타 1타점(결승타) |
| 3일(vs 두산) = 4타수 1안타 2타점(결승타) |
| 5일(vs 한화) = 5타수 2안타 3루타 |
| 16일(vs LG) = 4타수 무안타 |
| 19일(vs 한화) = 4타수 1안타 3점 홈런 4타점(결승타) |

5개의 사사구를 얻은 최희섭과 9개를 얻은 가르시아는 출루율도 0.294와 0.386으로 차이가 난다.
 개인 의존도가 높으면 팀은 안정된 승부를 펼칠 수 없다. 팬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KIA는 우리 히어로즈와의 대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 전력 외로 평가받았던 우리는 팀 타율 1위(0.288)와 홀런 2위(17개)를 달리며 중위권을 달리고 있다. 다크호스로 주목 받았던 KIA는 팀 타율 5위(0.254), 홀런 7위(8개)로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장성호(0.315 2홀런 13타점)-최희섭(0.238 3홀런 10타점)-이현근(0.250 2타점)과 정성훈(0.271 1홀런 7타점)-브룸바(0.313 5홀런 19타점)-이승용(0.266 2홀런 8타점)으로 이어지는 양팀의 중심 타선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팀의 승부도 갈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화합 스포츠 큰 잔치 열렸다

도민체전 어제 고흥서 개막...열전 4일
 선수단 5천여명 18개 종목 기량 겨뤄

“200만 전남 도민의 한마당 잔치” 제47회 전남도민체육대회가 22일 ‘우주항공도시’로 급부상중인 ‘유자골’ 고흥 공설운동장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육상·축구·배구 등 18개 종목에 걸쳐 5천816명(임원 1천964명, 선수 3천85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하나된 전남의 꿈, 우주항공도시 고흥에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지난해 우승한 여수시가 2연패를 노리는 가운데 순천, 광양, 목포 등이 종합 1위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고흥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순천시 소재경기장 등 22개 보조경기장에서 분산개최된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5시 도민, 선수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공설운동장에서 선수단 입장, 대회기 게양, 성화점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고흥전통농악인 월포농악, 모터페라클라이밍 축하비행은 시작으로 풍고 퍼포먼스, 드럼 타악 퍼포먼스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며 도민 화합을 지원하는 불꽃놀이가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성화봉종주자는 제28회 아테네올림픽 남자양궁 금메달리스트 장용호(고흥실고 3년)와 불링 청소년대표 전기애(고흥실고 3년) 양이 맡았으며 한국최초 우주인 이소연씨 응원차 러시아를 다녀온 오승훈(순천고 1년)군과 한국최초 우주인 이소연씨와 동명자인 이소연(두원초 6년)양이 성화

를 점화했다.
 이날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방면길에 오른 박재영 전남체육회장 대신 대회사 한 박재영 전남체육회 부회장(전남도 행정부지사)은 “특히 올해 전남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역량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입장상은 화순군이 1위, 강진군이 2위, 구례군이 3위를 차지했다.
 /고흥=최재호기자lion@kwangju.co.kr
 /주걱중기자 gjuu@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펠러 회원권
 저가·핵심권 회원권, 비 상공회비에서 탈락한 경기장 및 모야레포트타운으로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승수에 일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베소가 되었습니다.
 상담 : (062)351-0095